“진정한 화합은 참회서 시작…화해의 길로”

특별인터뷰

관음종 종정 영산(靈山) 홍파(泓坡) 스님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해마다 기리는 광복절이지만, 올해 80주년을 맞는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일제가 남긴 아픔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고, 과거사 청산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공식 수교 후 지난 60년 동안 문화·민간 차원의 교류로 우호를 다져왔지만, 역사 문제만큼은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일불교 교류에 앞장서 온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스님은 ‘강제 징용 희생자 유골 환국’을 양국 역사 문제 해결의 단초로 보고, 화해의 길을 모색해 왔다. 7월 21일 광복절을 앞두고 만난 홍파 스님은 “진정한 상생과 화합은 과거사에 대한 참회와 용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한일불교 교류의 시작과 확장

홍파 스님이 일본불교와 교류를 시작한 건 1980년대 초반이다. 당시 일본 불교계는 폐쇄적이었고 낯선 이들에 대한 경계심도 컸다. 그럴수록 스님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 애썼고, 수차례 일본 사찰의 문을 두드리며 마음을 전했다. 스님의 진심에 일본 불교계도 마음을 열어 자연스레 교류의 물꼬가 트였다. 그 결과 1976년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준비위원회가 발족했고, 1977년 10월 한일불교교류협의회(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한일불교 교류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한중일 삼국은 대승불교권으로, 역사적으로 1000년 넘는 관계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도 적지 않았지요. 국민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불교가 먼저 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교는 종교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과 문화적 화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출범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

“1977년 이전에는 양국이 친선 방문 수준에 그쳤지만, 한일불교교류협의회가 출범하고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술 세미나와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과거사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005년 수덕사에서 열린 제26차 대회에서 일본 대표였던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참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2008년에는 일본 우천사에서 양국 합동으로 ‘한국 출신 전몰자 유골 송환 위령재’를 봉행하고 우천사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 10위를 조국으로 송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9년 여주 신륵사에서 열린 제3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서는 과거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비석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인 유골 환국 사업’ 종책 선언

홍파 스님은 일본 불교계와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일본 사찰에 강제 징용 희생자 유골이 안치된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스님은 2015년 관음종 창종 50주년을 계기로 ‘조선인 유골 환국 사업’을 종책으로 공식화했다. 한두 해의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종단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가자는 취지였다.

–유골 환국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17년부터 진언종 평간사, 정토종 광명사, 임제종 건장사, 천태종 원만사 등 일본 주요 종단을 찾아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희생자 유골 환국을 위한 합동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일련종 본문사에선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하고 위령재를 올렸습니다. 2018년에는 강제 징용자 816기의 유골과 위패가 봉안된 홋카이도 삿포로시 약왕사를 찾아 ‘홋카이도 무명 희생자 추모비’를 참배하고, 중앙사에서 조동종 스님들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추모재’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일불교 교류에 앞장서 온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스님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양국의 화합과 강제 징용 희생자 유골의 환국을 기원했다.



그간 일본 불교계에서 보내온 편지를 보여주고 있는 홍파 스님.



홍파 스님이 올해 5월 조세이탄광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헌화하는 모습.



2018년 약왕사를 찾아 ‘홋카이도 무명 희생자 추모비’를 참배했다.



올해 5월 열린 일제강점기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83주기 희생자 위령재.

창종 60년 · 한일수교 60년 맞는 관음종
‘강제 징용 희생자 유골 환국’ 종책 사업으로
인식 확산·유골 봉안 실태 점검 ‘성과’
17년부터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위령재 봉행
유골 수습 첫발…“고국에 모시는 그날까지”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평가하자면?

“강제 징용 희생자 유골을 조국으로 모셔 와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다수 언론보도를 통해 인식이 확산됐고 일본 각 종단에서도 유골 보관 실태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역사 인식에 관해 일본 종단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도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는 관음종의 대표적인 조선인 강제 징용 피해자 추모사업이다.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 ‘조세이(長生)탄광’에서 발생한 갱도 붕괴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수몰됐다. 한일 불교계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건 2015년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였다. 당시 대회에 참관한 히로시마 총영사가 한국불교계에 위령재 봉행을 요청했고, 이듬해인 2016년 1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현지 첫 위령재를 열었다. 이후 2017년부터는 관음종이 책임을 맡아 현재까지 매년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관음종은 일본 시민들로 구성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이하 새기는회)’와도 협력해 추모비 조성, 유족 찾기, 유골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새기는회는 지난해 9월에는 마침내 수몰된 갱도 입구를 발견하고, 현재는 붕괴된 철관과 목재를 제거하며 유골 수습을 위한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간 일본 정부는 조세이탄광의 수몰 위치가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차원의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유골 발굴 작업에 대한 정부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

–활동에 가장 어려운 점은?

“바다 깊은 곳에 묻혀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생각하면,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슴이 저립니다. 희생자들을 조속히 고국으로 모셔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껏 활동해 왔습니다. 매년 위령재 동참 인원이 늘고 갱도 입구를 발견하는 성과도 있지만, 유골 수습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민단체와 종단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유골 수습을 위해선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과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유골 발굴 지원을 검토 중인데?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는 새기는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관음종의 묵묵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유골이 고국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지금처럼 계속해 나가면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결국 움직일 것이라 믿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자들에게 한 말씀

“우리 불자들이 자기 수행에만 집중하기보다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역할도 해야 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함께하면 반드시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해방 80년을 맞아 사회적 자비행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직 광복을 맞지 못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기리는 ‘나눔의집’

설립 후 30년간 불교계 헌신으로 운영

광복절 하루 전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로,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경기도 광주에 자리한 나눔의집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가 조용히 숨 쉬고 있다.

나눔의집은 1995년 국내 유일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시설로 문을 열었다. 개원 당시 15명의 할머니가 거주했으나, 2025년 7월 현재는 할머니들이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양로시설은 비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교육관과 역사관은 여전히 운영되며 피해 참상을 증언하고 있다.

나눔의집의 역사는 1990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던 당시, 불교인권위원장이던 월주 스님이 주축이 되어 불교계에서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돌봄 시설 마련에 나선 것. 92년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임시거주지로 처음 문을 연 이후 명륜동과 혜화동을 거쳐, 한 독지가의 기증으로 95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다. 96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설립 허가를 받고 제1대 대표이사에 월주 스님이 취임했다.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은 매주 한글과 그림을 배우며 피해 참상을 글과 그림에 담아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다. 또 매주 수요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시위에 참석해 피해를 증언하고 일본의 과거사 참회와 사죄를 촉구했다.

1998년에는 성노예 피해를 알리는 세계 최초의 역사관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개관했다. 역사관 건물은 곽정환 대동주택 회장이 건축해 기증했으며, 역사관 개관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한일 양국에서 민간 모금 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역사관에는 1930년대부터 1954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일본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제 관련 피해자 증언과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또 할머니들의 그림 및 유품 전시관, 추모공간 등도 조성돼 당시의 실상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의 장인 이곳에는 매년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방문하고 있다.



나눔의집은 1995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시설로 문을 열었다.

나눔의집은 2020년 운영 부실 의혹이 제기되며 몸살을 앓기도 했지만, 법적 공방과 특별감사 등 오랜 진통 끝에 2022년 정식이사 체제를 구축하며 정상화됐다.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회계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처분 사항도 모두 이행했다.

올해 2월 새 대표이사에 취임한 세영 스님은 “나눔의집이 대한민국 역사를 기록하고 추모하고 교육하는 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역사관 주말 개관 등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할머니들의 기록물을 정리하고 정원을 새롭게 정비하는 한편, 나눔의집의 법적 지위와 후원금 감소에 따른 운영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여수령 기자

원폭 피해자를 위한 ‘합천평화의집’

비핵 세상 이루는 치유와 연대의 공간

“원자폭탄 피해자가 우리나라에도 있다고요?”

일제강점기 말인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8월 15일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는 해방의 기쁨을 맞았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는 강제 동원으로 일본에 끌려간 당시 ‘조선인’도 있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원자폭탄으로 피폭된 한국인은 총 10만 명이고, 사망자만도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생존자 중 2만여 명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피폭 후유증을 온몸으로 견디며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다.

2023년 4월 기준, 생존 원폭 피해자는 1800여 명. 더 큰 문제는 원폭 피해가 대물림된다는 점이다.

특히 합천에는 원폭 피해자의 70% 정도가 살고 있어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린다. 합천평화의집(원장 이남재)은 2002년, 국내 원폭 2세와 뜻있는 시민단체가 협력해 설립한 비핵·평화운동 단체다. 경상남도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견인하고, 조례를 근거로 합천군 내 피해자를 위한 심리 치유 서비스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원폭 희생자 추모제와 합천 비핵·평화 대회 개최, 평화 나들이 등 원폭 피해자 1·2·3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남재 합천평화의집 원장(한국비핵평화시민연대 회장)은 불교계의 대표적인 일꾼이다.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30여 년간 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민중불교운동연합, 위드아시아 등 불교단체에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합천평화의집’ 설립에 앞장서게 됐다. 2012년부터 합천비핵·평화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1인 릴레이 시위까지 펼쳤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6년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 제정됐지만 2·3세 피해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남재 원장은 “오늘날 여전히 피폭당했다는 이유로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2세, 3세가 있다”며 “원폭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자 미래이고 우리들의 문제”라며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7월 8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비핵 평화를 위한 평화의나무 합창 공연.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계종 화쟁위원회도 원폭 피해자 문제에 주목하고 불교계의 역할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7월 7일 합천원폭피해자복지관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계종 사회부장 진경 스님은 “피해 실상이 알려지고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이 이뤄질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가는 데 화쟁위원회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경 스님은 7월 8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비핵 평화를 위한 평화의나무 합창 공연에도 참석해 불교계의 역할을 약속했다.

합천평화의집은 광복 80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말한다. 개발주의와 전쟁을 멈추지 않는 한 인류는 언제든 원폭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여수령 기자